

【논 문】

중국 關內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과 평가

윤 위 탁*

┆ 차 례 ┆

- I. 서론
- II.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학계의 총론적 인식과 평가
- III.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역할
- IV. 결론

국문초록

오늘날 중국학계에서는 중국 ‘關內’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독립운동이 한국인의 반제국주의 용기와 신념을 고무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 교민들이 중국 인민과 함께 항일전쟁에 적극 참여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인식한다. 중국학계에서는 한국독립운동세력에 대한 국민정부(공산당을 포함해서)의 원조와 지도, 분열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매우 강조하면서도, 국민당 내의 파벌투쟁이 한국독립운동의 분열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독립운동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이나 평가는, 한국독립운동이 중국의 원조와 지도에 의해서만 지속해나갈 수 있었다고 파악할 뿐, 한국독립운동이 중국의 항일전쟁에서 차지한 위상과 역할, 중국정부(중국 공산당 포함)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한국독립운동세력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 한국독립운동세력이 중국의 反帝 反파시스트 저항운동 및 사회주의 혁명운동 그리고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주었는지, 중국과 한국독립

* 국립 환경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운동세력 사이의 ‘쌍방향적인’ 상호작용과 역할, 의미 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중국학계의 한국독립운동 인식과 평가는 施惠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고 전통적인 宗主國의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중국의 주관적인 입장에 치우쳐 있다.

주제어 : 한국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열투쟁, 한국광복군, 조선의용대, 중국 국민정부, 중국 공산당

I. 서론

국내학계에서 독립운동을 다룬 선행연구는 상당히 많아서 1천 수백 편에 달한다.¹⁾ 그런데 한국독립운동은 조선이 아닌 중국이나 연해주 등지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국내학계의 ‘一國史的인 시각’만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에 접근하는 것은, 한국독립운동이 지녔던 다양한 특성들을 간과하고 그 운동의 功過를 我田引水式으로 해석할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말해 그러한 일국사적 접근방식은 한국독립운동의 국제적 성격, 특히 독립운동지역 내 해당 민족과의 연계성 및 그들과의 항일민족통일전선 구축의 실태, 한국독립운동세력과 在中 한국교포들 사이의 연계성과 이들의 지원 활동, 한국독립운동세력 내 각 政派·무장부대들과 중국정부(혹은 중국 공산당) 사이의 連帶 및 후자의 원조 활동, 한국독립운동세력의 갈등·분열·모순 등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응과 역할, 한국독립운동세력의 분열 양상이 항일전쟁이나 한국독립 획득과정에 미친 악영향, 중국 국민정부 내의 계파 갈등이나 원조 방식이 한국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이나 부작용, 한국독립운동세력을 자신들의 지도와 영향권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국·공 양

1) 연구동향에 관해서는 윤경로, 2010,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 2000년대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2집 ; 李炫熙, 1997, 「1930년대 中國地域 韓人獨立運動의 研究成果와 課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6집 ; 尹善子, 2006, 「광복 60주년과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역사학보』 제191집을 참조 바람.

당이 벌였던 주도권 싸움, 한국독립운동이 한국·동북아·세계 반파시스트 운동·세계 피압박 민족의 해방운동 등에 미친 영향이나 거기에서 차지한 위상 등을 밝혀내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한국독립운동이 지닌 국제적 성격 전반을 파악하려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해 한국독립운동의 功過에 대한 중국정부(국·공 양당 및 지도자 포함) 및 중국학계의 인식과 평가 등을 냉철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인, ‘중국 關內지역에서의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학계²⁾의 인식과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³⁾의 동향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우선 이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분석 주제도 3·1운동 전후 쑨원(孫文)이나 근대 중국인의 한국 인식, 한국독립운동에 투영된 쑨원의 중화의식,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중국 매체의 보도와 인식, 20세기 초반 주요 중국 언론의 한국독립운동 인식, 尹奉吉 의사의 上海虹口公園 폭탄투척사건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항일전쟁 시기 중국 공산당의 한국 독립문제 인식 및 國共 양당의 韓國觀, 抗日武裝獨立運動에 대한 延邊史學界의 視角 등 지극히 국부적인 특정 주제나 특정 시기로 한정되어 있다. 게다가 선행연구에서는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인식 주체가 1920~40년대 당시의 중국 언론이나 지도자로 국한시키고 있거나 20여년 전 연변 사학계의 독립운동 인식 등을 다루고 있다. 그 결과 선행연구들은 최근까지의 독립운동 연구 성과가 반영된 중국학계 전반의 인식이나 평

2) 이 글에서는 부분적으로 국·공 양당 및 그 지도자들의 인식이나 평가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분석한 글이 중국학계의 관련 논문들임을 고려하여 ‘중국학계’라고 표기한다.

3) 김승일, 2010, 「3·1운동 전후 쑨원(孫文)의 한국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7집; 孫科志, 2007, 「近代中國人對三一運動的現況」, 『동북아 문화연구』 제13집; 배경한, 1999, 「손문(孫文)의 중화의식과 한국 독립운동」, 『역사비평』 제46집; 孫科志, 2010,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중국 매체의 보도와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5집; 장세운, 2013, 「20세기 초반 주요 중국 언론의 한국독립운동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75집; 한시준, 2009, 「尹奉吉의사의 홍구공원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2집; 장세운, 1995, 「抗日戰爭期 중국공산당의 한국 독립문제 인식과 대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 이재령, 2007, 「항전시기(抗戰時期)(1937~1945) 국공양당(國共兩黨)의 한국관(韓國觀): 『중앙일보(中央日報)』, 『신화일보(新華日報)』를 중심으로」, 『中國學報』 제56집; 金熙泰, 1991, 「武裝 抗日獨立運動에 대한 延邊史學界의 視角」,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집 등이 있다.

가를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중국 관내지역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념·조직·독립활동 전반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과 평가를 다룬 선행연구는 사실상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 글은 중국학계라는 ‘제3자’가 바라본 관내 한국독립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포함)의 업적뿐만 아니라 그것의 문제점과 한계까지도 보여줌으로써,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좀 더 객관화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과 심정적 동질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향후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글은 중국학계의 인식과 평가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한국독립운동 연구의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도 인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II.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학계의 總論的인 인식과 평가

1.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

우선 중국 관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에서는 임시정부라 약칭함)가 이끌던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중국학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쓰위엔화(石源華)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의 혁명가들이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다방면의 외교·군사 투쟁을 벌여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한다.⁴⁾ 특히 그는 1932년 尹奉吉 의사의 上海虹口公園 폭탄투척사건이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으며, 1937년 중일전쟁 이후 한국 인민의 반일독립운동과 무장부대는 중국인민의 항일전쟁과 일체가 되어 국민정부의 통치지역, 중국 공산당의 해방구에서 각각 중국 항일전쟁의 중요

4) 石源華, 1998, 『韓國臨時政府述論』, 『韓國反日獨立運動史論』(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14-116쪽.

한 국제적 縱隊가 되어 중국의 항일전쟁과 한국의 반일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이중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한국독립운동은 세계 反파시스트 전쟁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세계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식민주의와 싸워 승리하는 데 一助함으로써 세계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것이다.⁵⁾

그렇다고 중국학계에서 한국독립운동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판공자오(潘公昭)는 한국독립운동지사들이 광복의 뜻을 품고 한국의 반일독립운동과 중국의 항전을 위해 지위질 수 없는 역사적 공적을 남겼지만, 김구가 이끈 한국독립당과 김약산이 이끈 조선민족혁명당 양대 계파 간의 모순과 분쟁은 반일독립운동의 역량을 약화시켜 한국해방운동에 치명상을 입혔다고 비판한다.⁶⁾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국민정부의 한국독립운동 지원활동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중국학계의 평가이다. 장위홍(張玉紅)은 비록 중국 국민정부가 한국독립운동세력의 단결을 위해 애쓰고 한국독립운동세력 내 각 당파 간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 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국민정부의 원조정책이 타당성을 상실해 원조 효과를 반감시켰으며, 국민정부 내부의 파벌과 모순이 한국독립운동 각 당파의 분쟁에 악영향을 주어 한국독립운동의 길을 더욱 더 왜곡되고 굴절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⁷⁾

최근 대륙의 중국학자들은 한국독립운동에서의 국민당의 역할 못지않게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공산당의 관심·지지·역할도 부각시키고 있다. 가령 정청홍(鄭成宏)은 공산당 창시자인 천두슈(陳獨秀)나 마오쩌둥(毛澤東) 등이 한국독립혁명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한국 혁명가들을 흡수해 마르크스주의 연구단체, 공산주의小組, 사회주의청년단에 가입시킨 점, 제1차 국공합작 이

5) 石源華, 2006, 「紀念韓國獨立光復60周年感言:論韓國獨立運動在世界現代史上的地位與作用」, 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 編, 『韓國研究論叢』 第13輯, 1-3쪽.

6) 潘公昭, 1947, 『今日的韓國』(上海:中國科學圖書儀器公司), 161쪽.

7) 張玉紅, 2009, 「抗戰時期國民政府對韓國獨立運動派系矛盾的調處及其影響」, 『東疆學刊』 第26卷 第4期, 74쪽.

후 한국혁명청년들을 中山大學이나 黃埔軍官學校에 入校시켜 혁명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도록 소개해준 점, 중국 공산당의 歷次 대표대회에서 통과한 「宣言」에서 한국독립운동을 지지하고 그것을 국제주의적 의무로 여겼다는 점 등을 부각시킨다.⁸⁾ 하여튼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는 제2차 국공합작 이후 증폭되었다는 것이 중국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新華日報』에서 항일전쟁 기간 임시정부의 활동을 직접 보도한 기사가 30편, 간접적으로 보도한 기사가 수백 편에 달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⁹⁾

중국학자들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가령 위젠화(余建華)는 임시정부가 조선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투쟁목표로 삼아 자산계급의 자유·민주·평등의 가치를 높이 들고 반일애국활동을 주도함으로써, 조선인민의 반제 투쟁의 용기와 신념을 고무시켰고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침략세력에 타격을 가했으며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승리에 공헌을 했다고 평가한다.¹⁰⁾

또한 중국학계에서는 한국독립운동의 특징을 시기별·단계별로 구분한다. 가령 위젠화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중점이 성립 초기에는 외교·선전 활동에 두어졌다가 점차 군사 인재양성과 在滿 조선인 반일무장조직과의 연계 활동에 두어졌다고 파악한다.¹¹⁾ 趙金勇(趙金勇)도 외교적 선전, 혁명간부의 육성 등을 중심으로 암살활동과 무장투쟁을 벌인 것을 독립운동의 제1단계로, 정규부대를 만들어 항일투쟁하는 것을 광복(復國)의 주요 수단으로 삼던 것을 제2단계로 규정한다.¹²⁾ 특히 위젠화는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한다. 그에 의하면 중일전쟁을 계기로 임시정부에서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패 여부가 곧 한국

8) 鄭成宏, 2005, 「中韓友誼之樹長青--中國共產黨支持韓國獨立運動的歷史見證」, 『當代韓國』春季號, 52쪽; 石源華, 1997, 『中國共產黨與韓國獨立運動關係記事』(서울: 高句麗), 366쪽.

9) 何立波, 2007, 「“韓國國父”金九餘中國的不解情緣」, 『史潮汐』第5期, 42쪽.

10) 余建華, 1994, 「大韓民國臨時政府諸問題探略」, 『史林』第4期, 78쪽, 80쪽.

11) 余建華, 1994, 위의 글, 78쪽, 80쪽.

12) 趙金勇, 2005, 「論韓國臨時政府的武裝復國運動」, 『軍事歷史研究』第2期, 135쪽.

독립운동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수많은 在中 조선인 교민들에게 중국인민과 함께 항일혁명전쟁에 참여하도록 적극 호소하고 각종 무장조직을 만들어 항일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³⁾

2. 한인애국단의 義烈투쟁

중국학계(중국인)에서는 한국독립운동의 두드러진 업적으로서 한인애국단의 義烈투쟁, 특히 1932년 1월 이봉창의 櫻田門事件과 동년 4월 윤봉길의 上海虹口公園 폭탄투척사건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중국학자들이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을 임시정부가 주도한 ‘암살’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우칭(茂淸)은 임시정부가 주도한 암살 활동의 목적이 “일본 군정 수뇌를 암살해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적에게 공포와 혼란을 주는 동시에, 국민의 의기와 투지를 북돋우려는 데”에 있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그는 이봉창의 천황 암살미수 사건이 비록 실패했지만, 한국동포들의 항일투지를 크게 고무시켰으며, 원래 임시정부에 반대하던 일부 동포들로 하여금 임시정부의 암살 활동을 적극 지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한다.¹⁴⁾

특히 윤봉길의 의거는 중국에서 엄청난 지지를 불러일으켰는데, 이와 관련해 조우웨이웨이(鄒蔚蔚)는 “국민당 10개 사단도 할 수 없던 일을 조선의 젊은 청년 의사가 해냈다.”는 장제스(蔣介石)의 칭찬을 비롯해, “高麗黨人の長擧”라는 중화소비에트 중앙인민정부 기관지(『紅色中華』)의 보도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¹⁵⁾ 실제로 윤봉길의 의거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中外의 각 언론매체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 5~6일 간 號外나 특별 발간 형태로 계속 보도되었다. 또한 이 의거는 당시 상해 최대의 신문인 『申報』와 국민당의 중앙 언론사를 비롯해 멀리 江西省 瑞金에 있던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임

13) 余建華, 1994, 앞의 글, 80쪽.

14) 茂淸, 2002, 「大韓民國臨時政府在上海」, 『文史精華』 第2期(總141期), 22쪽.

15) 鄒蔚蔚, 2013, 「在中國奮鬥二十六年的“韓國國父”金九」, 『文史天地』 第8期, 84쪽.

시정부의 기관지 『紅色中華』에서도 계속 보도될 정도로 중국인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¹⁶⁾

중국학계에서는 윤봉길의 의거를 “한국 내 항일세력의 존재를 드러내고, 中韓 양국인의 투지를 고무시킨 사건”¹⁷⁾으로 평가한다. 가령 쑤즈량(蘇智良) 등은 이 의거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야욕에 타격을 가했고 중국 국내외를 놀라게 했으며, 萬寶山事件 후 한국인을 혐오하고 있던 중국인들의 對韓 감정을 호전시켜 中韓 민족 간의 감정을 개선시켰다.”¹⁸⁾고 평가한다. 조우웨이웨이 역시 윤봉길의 의거가 “한국 교민들의 애국열정을 드높이고 한국 교민 속에서 임시정부의 인지도를 제고시켰으며, 한인에 대한 중국 각계각층의 감정을 신속하게 호전시켰다.”고 평가한다.¹⁹⁾ 위젠화도 임시정부가 계획한 테러·암살활동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올바른 방식은 아니었지만, 조선인민이 일본의 폭압을 두려워하지 않는 투쟁정신을 드러내었다.”²⁰⁾고 단정한다. 쑤위메이(孫玉梅)도 “김구가 이끈 일련의 테러·암살 활동은 협애한 민족적 편견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보복행동이 아니라, 3천 만 조선민족이 정당한 생존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한·중 양국인민의 항일정서를 자극하고 항일통일전선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4억 중국인민과 함께 마음속의 한을 풀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 일으킨 정의의 의거였다.”고 평가한다.²¹⁾

그런데 중국학계에서는 윤봉길의 의거가 한국독립운동에 轉機를 마련했으며, 임시정부 및 김구의 국내외적 위상과 역량을 높여주었다고 평가한다.

16) 張欣, 2003, 「虹口公園爆炸案對大韓民國臨時政府的影響」, 『石油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9卷 第2期, 75쪽.

17) 何立波, 2007, 앞의 글, 40쪽; 李昊, 2004, 「韓國獨立運動與鐵江」, 『江蘇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卷 第4期, 32쪽.

18) 蘇智良·高興華, 2007, 「金九在上海」, 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 編, 『韓國研究論叢』 第17輯, 197쪽; 何立波, 2007, 앞의 글, 40쪽; 李昊, 2004, 위의 글, 32쪽.

19) 鄒蔚蔚, 2013, 앞의 글, 84쪽.

20) 余建華, 1994, 앞의 글, 79쪽.

21) 孫玉梅·宋健·金成蘭·馬彥合 著, 1997, 『韓國著名獨立運動家傳』(長春: 吉林省社會科學院), 405-406쪽.

가령 차오진용은 윤봉길의 의거가 중국 국민정부로 하여금 한국독립운동에 주목하도록 만들었고, 국민당이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한국무장독립운동을 지지하게 만든 계기를 마련했다고 인식한다.²²⁾ 상당수 중국학자들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김구는 자신의 용기와 재간을 보여주었고 한국의 각 혁명단체들 속에서 자신의 명성을 제고시켰다고 본다. 이것은 김구가 당시 중국 언론으로부터 ‘조선혁명의 영수’로 지칭되었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하여튼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정부도 김구를 핵심으로 하는 임시정부를 지지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중국정부의 신뢰와 지지를 받게 된 김구 역시 중국 국민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점차 임시정부의 실권을 장악해 한국독립운동의 핵심세력이 되었다는 것이 중국학계의 중론이다. 더욱이 중국정부의 굳건한 지지를 획득한 김구는 임시정부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내부의 파벌투쟁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²³⁾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던 한국독립운동도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면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한국독립운동세력도 무시할 수 없는 반일세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임시정부는 한국 민중, 특히 해외에 거주한 교포들 속에서 위신을 얻게 되었고 한국인민의 항일투쟁정신을 고무시켰으며,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활력을 얻고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해 국제사회로 하여금 일본이 제멋대로 조선을 병탄한 사실에 주목하게 했으며, 중국과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이끌어냈다고 평가받는다.²⁴⁾

그런데 윤봉길의 의거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장신(張欣)의 주장처럼, 이 의거가 김구 등 한국독립지사들의 독자적인 계획과 실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官方 인사가 임시정부와 공동으로 계획한 결과²⁵⁾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즉 윤봉길의 의거는 한국인만의 단독 거

22) 趙金勇, 2005, 앞의 글, 136쪽.

23) 張欣, 2003, 앞의 글, 76-77쪽; 鄒蔚蔚, 2013, 앞의 글, 85-86쪽; 李昊, 2004, 앞의 글, 32쪽; 何立波, 2007, 앞의 글, 39쪽.

24) 張欣, 2003, 앞의 글, 76쪽.

사가 아니라 중국정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3. 한국인 무장부대의 역할

한편 중국학계에서는 한국인 무장부대의 역할도 호의적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1938년 10월 武漢에서 조직된 朝鮮義勇隊와 1940년 9월 중경에서 조직된 韓國光復軍이 중국인민의 항전사업을 위해 중국 땅에서 피를 흘렸고 많은 희생과 공헌을 했다고 평가한다.²⁶⁾ 먼저 조선의용대와 관련해서, 延安의 『解放日報』에서는 조선의용대의 공적을 수시로 보도하고 있었다.²⁷⁾ 저우언라이(周恩來) 역시 1942년 11월 中韓文化協會 초대 모임에서 “각 전선에서 피와 땀을 흘렸고, 북방의 평원에서 매우 많은 조선인 壯士들이 희생되었다.”²⁸⁾고 연설하였다. 국민당 제3戰區 司令長官 구주동(顧祝同)도 “일본 말을 못하는 중국인은 일본군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매우 곤란했는데, 조선의용대원들이 비교적 쉽게 일본군 부대에 침투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일본군 소속 조선인 병사들을 생취하는 데 매우 큰 공헌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²⁹⁾고 평가하였다. 왕메이(王梅) 등도 당시 조선의용대가 규모는 작았지만 포로 교육, 일본 문건 번역, 일본군 소속 한국 국적 사병의 생취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일본의 정치·경제·문화를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일본어에 능통하고 활동능력이 뛰어나서 문예·강연·표어·전단·벽보·만화 등의 형식으로 항일 선전활동을 벌여

25) 張欣, 2003, 앞의 글, 75쪽. 1932년 4월 국민당 愛國將領 천명수(陳銘樞)는 ‘暗殺大王’으로 불린 왕야차오(王亞樵)와 만나 사람을 경축대회장에 잠입시켜 폭탄을 투척할 것을 모의했지만, 일본군이 중국인의 입장을 불허하고 암살자 역시 일본어를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안창호·김구 등과 異國의 戰友관계를 맺고 있던 왕야차오는, 안창호가 흔쾌하게 동의한 가운데 중국 쪽에서 특별 제작한 폭탄과 활동비 4만 원을 제공했다고 한다.(茂淸, 2002, 앞의 글, 22쪽)

26) 趙金勇, 2005, 앞의 글, 142쪽; 『新華日報』 1942년 11월 11일.

27) 『解放日報』 1942년 12월 27일.

28) 『新華日報』 1942년 11월 11일.

29) 顧祝同, 1983, 『朝鮮義勇隊의 第三戰區工作』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韓國獨立運動史料集』 (서울: 博英社), 43쪽.

국민당의 각 戰區사령관과 중국정부로부터 칭찬과 지지를 받았다고 평가한다.³⁰⁾

그런데 중국학계에서는 조선의용대의 항전과정에서 중국정부나 공산당의 지원·지도 활동과 공적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조선의용대가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지도와 제안 속에 국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조직되었다는 점, 조선의용대가 중국군의 ‘지휘’ 하에 직접 중국의 항일전쟁에 참여하여 중국의 항전 대열 속에서 제법 영향력 있는 國際縱隊가 되었다는 점, 조선민족혁명당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 정치부에 예속되어 군비나 처우 문제에서 국민당 군대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는 점³¹⁾, 1938년 11월 하순 조선의용대의 일부 대원들이 저우언라이를 따라 桂林으로 간 뒤 八路軍駐桂林辦事處의 지도 하에 공작을 전개했고 義賈현금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는 점, 1939년 조선의용대 제2지대가 중국 공산당 지부를 설립하고 新四軍의 지도를 받았다는 점, 1939년 후반부터는 중공의 영향 하에 조선의용대의 각 부대가 계획적으로 일본군 점령지 안으로 계속 침투해 들어갔다는 점,³²⁾ 화북의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대 총사령부 사이의 연락이 단절된 이후부터 조선의용대는 팔로군과 손을 잡고 일본군 점령지에서 항전을 벌였다는 점³³⁾을 들고 있다. 즉 조선의용대가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원조와 지도, 영향력 속에 조직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군과 함께 항전을 벌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에 한국광복군과 관련해서 중국학계에서는 한국광복군의 조직 필요성을 둘러싼 국민정부 내 지도부의 이견, 조직과정에서 국민정부가 한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³⁴⁾ 이와 아울러 중국 국민당이 1941년 11월 13일 공포한

30) 王梅·李波龍, 2015, 「本土新聞媒體視域下的韓國獨立運動」, 『當代韓國』 第1期, 2쪽.

31) 楊天石, 2000, 「蔣介石與韓國獨立運動」, 『抗日戰爭研究』 第4期, 6쪽; 趙金勇, 2005, 앞의 글, 137-139쪽; 石源華, 1995, 『韓國獨立運動與中國』(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52-253쪽.

32) 文正一·池寬容, 1995, 「抗日戰爭中的朝鮮義勇隊」, 『民族團結』 第7期.

33) 『解放日報』 1941年 10月 7日.

34) 趙金勇, 2005, 앞의 글, 138쪽; 楊天石, 2000, 위의 글, 7쪽;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88, 『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臺灣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史料總刊 7)(臺北: 中央研

「韓國光復軍九個行動準繩」(이하 「準繩」)을 근거로 당시 한국광복군이 중국 국민정부에 예속된 하위조직이었음을 은연중 강조한다. 즉 한국광복군은 항일작전 기간에 중국 군사위원회에 직속되어 지휘를 받고 있었고 한국광복군의 운용·정치훈련 권한도 군사위원회 참모총장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소재지도 군사위원회에서 지정했다는 점, 한국광복군은 중국의 靑天白日의 모자 徽章을 달고 있었다는 점, 임시정부는 한국으로 還國하기 전까지 중국 최고통수의 명령을 받았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³⁵⁾ 한국광복군 역시 조선의용대처럼 중국 군사위원회에 직속된 채 국민정부에 의해 지휘·통제·운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학자들은 대만 國民黨史會에 소장된 한·중 관계 문서들을 바탕으로 한국광복군에 대한 중국 국민정부의 지휘·통제·운용에 대해, 한국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반발했고 양자 간의 갈등이 어떠했는지도 밝혀주고 있다. 가령 민쓰린(閔石麟)은 한국독립운동가들이 “한국의 광복군이 아니라 중국의 광복군이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고 원하지도 않는 의무를 짊어져야 한다”, “무기한으로 참전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불만을 표출했으며, 그 중에 몇몇 한국 사람들은 “「準繩」이 한국독립정신을 훼손했고,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등의 권한을 상실하게 만들었으며 국가를 욕 먹었다”고 비판한 내용들도 밝히고 있다.³⁶⁾ 심지어 한·중 관계 사료를 근거로, 1942년 10월 大韓民國臨時議政院에서 임시정부가 비밀리에 중국 쪽과 「準繩」의 폐지 교섭을 벌이되 성사가 안 되면 사직하고 임시정부를 미국으로 옮긴다는 결의까지 했다는 점,³⁷⁾ 1943년 2월

院近代史研究所), 330-331쪽; 「照抄陷川侍六代電」(韓國光復軍卷), 『中韓關係專檔』三(臺北:中國國民黨史會 所藏); 楊天石, 2000, 앞의 글, 7쪽.

35)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88, 위의 책, 337-342쪽; 1992, 「國民政府軍事委員會訓令」, 『尹呈輔先生訪問記錄』(臺北:近代中國出版社), 56쪽.

36) 閔石麟, 「韓國各黨派述略」(韓國各黨派情報卷), 『中央關係專檔』十(臺北:中國國民黨史會 所藏); 楊天石, 2000, 앞의 글, 8쪽.

37) 「韓國臨時政府擬遷往美國」(委員長侍從室致吳鐵城函附件)(韓國臨時政府情報卷), 『中韓關係專檔』九(臺北:中國國民黨史會 所藏); 楊天石, 2000, 앞의 글, 8-9쪽.

임시정부 외무부장 趙素昂은 중경의 국민정부 외교부 인사와 만나 「準繩」을 폐지하고 별도로 「中韓互助軍事協定」을 체결하며, 한국광복군을 임시정부에 예속시키고 그 소속 인원의 任免과 정치훈련도 임시정부에서 주관하도록 요구했다는 점³⁸⁾, 더욱이 1943년 12월 임시정부의정원에서는 신임 국무원이 3개월 내에 중국정부와 수정 교섭을 벌이되 교섭의 결과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準繩」의 무효를 선언하기로 의결했다는 점,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는 「中韓互助軍事協定草案」 작성과정에서 자신들이 국민정부로부터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한국광복군은 나름대로의 성취를 올렸는데 중국 군사위원회에 의해 완전히 통제받고 있다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³⁹⁾ 양톈쓰(楊天石)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1944년 6월 조소양은 국민당 중앙에 정식으로 「中韓互助軍事協定草案」을 제출했고, 동년 9월 8일 장제스가 임시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결과,⁴⁰⁾ 1945년 5월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⁴¹⁾ 결국 중국학자들은 한국광복군의 창설과정 못지않게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의 지휘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뒤따랐음을 밝히고 있다.

38) 「韓國臨時政府外務部長趙素昂照會」(韓國臨時政府情報卷), 『中韓關係專檔』二十一(臺北:中國國民黨史會 所藏); 楊天石, 2000, 앞의 글, 9쪽.

39) 「張壽賢致吳鐵城呈」(韓國光復軍卷), 『中韓關係專檔』三(臺北:中國國民黨史會 所藏); 楊天石, 2000, 앞의 글, 10쪽.

40) 「蔣介石致吳鐵城函」(軍事委員會快郵代電 第12349號)(韓國光復軍卷), 위의 檔案集, 『中韓關係專檔』三; 楊天石, 2000, 앞의 글, 9쪽.

41) 楊天石, 2000, 앞의 글, 10쪽.

Ⅲ.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역할

1.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각종 지원

그렇다면 중국정부(국민당)에서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과 각 정파들의 분열행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들의 단결·통합을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을까?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활동은, 크게 독립활동 자체에 대한 각종 지원과 한국독립운동세력 내부의 분열에 대한 통합 노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국인들은 한국 망명인사들이 자신들과 같이患難을 겪고 있다는 민족감정에 기초해 임시정부의 반일독립운동에 대해 동정과 지지를 표명했고 줄곧 정신적·물질적으로 원조했으며, 한국의 독립운동을 자신들의 일이자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열성적인 독립지원은 임시정부의 독립광복사업에 대한 신념을 강화시켰다고 회고한다.⁴²⁾ 또한 한국독립운동이 중국정부의 지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장기간 독립운동을 지속하면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인식한다.⁴³⁾

그렇다면 중국정부는 임시정부를 어떻게 지원했을까? 다수의 중국학자들은 1921년 중화민국 護法軍政府의 非常大總統 쑨원(孫文)이, 임시정부 총리 겸 외교부장인 申圭植의 도움 요청에, 임시정부를 승인하였고 중국 군사학교에서의 조선청년 수용과 훈련에 동의했으며, 北伐이 성공한 후에는 전력을 다해 한국광복운동을 원조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점을 지적한다.⁴⁴⁾ 또한 廣東혁명정부와 쑨원 死後의 南京國民政府에서도 임시정부의 무력에 의한

42) 余建華, 1994, 앞의 글, 79쪽; 石源華, 2006, 「紀念韓國獨立光復60周年感言：論韓國獨立運動在世界現代史上的地位與作用」, 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 編, 『韓國研究論叢』 第13輯, 6쪽; 謝俊美, 2004, 「抗戰時期中國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6卷 第1期, 36쪽.

43) 鄒蔚蔚, 2013, 앞의 글, 85쪽; 何立波, 2007, 앞의 글, 41쪽.

44) 王子毅, 1945, 『韓國』(常務印書館), 248쪽; 茂淸, 2002, 앞의 글, 21쪽; 趙金勇, 2005, 앞의 글, 135쪽; 林能士, 1998, 「國民黨派系政治與韓國獨立運動」, 『韓國研究論叢』 第4輯, 109쪽; 鄒蔚蔚, 2013, 앞의 글, 85쪽; 何立波, 2007, 앞의 글, 41쪽.

광복운동에 대해 도의적·경제적·군사적으로 적극 원조했으며, 黃埔軍官學校나 군사위원회 간부훈련반, 남경의 中央軍官學校에서도 한국청년들을 받아들여 군관으로 양성해 조선의용대나 한국광복군의 간부가 되어 중국인들과 손잡고 對日정보 수집공작에 참여하거나 항일전투를 벌이도록 했다는 점을 거론한다.⁴⁵⁾

특히 1932년 장제스는 국민당 중앙조직부 부장 천커푸(陳果夫)와 三民主義力行社 書記 텡제(騰傑)에게 한국독립운동 원조공작을 추진하도록 했으며,⁴⁶⁾ 1933년 5월에는 비밀리에 金九를 만나 김구의 암살활동을 통한 救國 방법에 찬성하지 않은 채, “만일 특무공작에 의해 천황을 죽이면 새로운 천황이 나올 것이고 대장을 죽여도 새로운 대장이 나올 것이므로, 장래의 한국독립을 생각한다면 먼저 무장 간부들을 양성해서 무장투쟁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⁴⁷⁾고 조언했다고 한다. 즉 장제스는 한국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방식을 암살활동에서 군사간부 양성 및 무장부대 조직을 통한 무장투쟁으로 전환하도록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것이다.⁴⁸⁾ 冢오진용이나 양자오추엔(楊昭全) 등은 국민정부에서 임시정부, 한국독립당, 光復陣線 단체, 조선의용대, 조선민족혁명당의 운영비를 비롯해 이들 조직의 간부와 가족의 생활비를 제공한 점을,⁴⁹⁾ 후춘후이(胡春惠)는 국민정부에서 김구에게 별도의 비밀 활동비를 지급해서 이 경비로 혁명동지를 임시로 구제하거나 비밀리에 일본군 점령지로 인원을 파견할 때 혹은 조선 내에서의 경비로 활용케 한 사실을,⁵⁰⁾ 세준메이(謝俊美)는 한국광복군이 국민당 군정부로부터 군사비를 지

45) 茂清, 2002, 앞의 글, 21쪽; 趙金勇, 2005, 앞의 글, 135쪽; 康澤, 1993, 『培養特別隊的의 星子特別訓練班始末』, 潘家劍 編, 『蔣介石特工密檔及其他』(北京: 群眾出版社), 142-148쪽; 楊天石, 2000, 앞의 글, 6쪽; 胡春惠, 1976, 『韓國獨立運動在中國』(臺北: 中華民國史料研究中心), 48-53쪽.

46) 楊天石, 2000, 앞의 글, 3쪽.

47) 楊天石, 2000, 앞의 글, 3쪽; 金九, 1970, 『白凡逸志』(臺北: 幼獅書店), 250쪽; 鄒蔚蔚, 2013, 앞의 글, 85쪽; 何立波, 2007, 앞의 글, 41쪽; 趙金勇, 2005, 앞의 글, 136쪽.

48) 李昊, 2004, 『韓國獨立運動與鎭江』, 『江蘇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卷 第4期, 32쪽; 蕭錚, 1953, 『韓國光復運動之鱗爪』, 『中央日報』(臺北) 8月 25日.

49) 趙金勇, 2005, 앞의 글, 139쪽; 楊昭全·韓忠富, 1996, 『大韓民國臨時政府史料匯編』(長春: 吉林省社會科學院出版社), 332쪽.

급받고 광복군 대원도 중국군 소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점⁵¹⁾을 지적한다. 심지어 장신은 임시정부가 重慶으로 옮겨오자, 임시정부 내 각 당파 구성원 및 그 가족들을 안치시키기 위해 국민정부에서 중경 교외의 土橋에 한인촌을 건설해 거주하게 했고, 소학교도 만들어 한인 아이들을 취학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⁵²⁾

특히 중국학자들은 1930-40년대 중국의 한국독립운동 원조활동과 관련해 장제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한다. 양톈쓰에 의하면, 장제스는 한국독립인사들의 민족감정을 존중했고 시의 적절하게 정책을 조정해서 우호관계를 유지시켜왔으며, 국제무대에서도 戰後 조선의 독립보장을 제창했고 국제사회의 신탁통치와 남북분열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원조과정에서 민족적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강대국들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는 것이다.⁵³⁾

그런데 중국학계에서는 중국정부(공산당을 포함해서)의 원조·지도활동만을 강조할 뿐, 당시 한국독립운동 혹은 한국독립운동가들의 존재와 활동이 중국의 항일전쟁 및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상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와 영향을 가져다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분명 중국 關內에서의 한국독립운동은 항일전쟁이 중국만의 反침략전쟁이 아니라 한국 까지도 연대하고 있는 국제적 정당성을 지닌 전쟁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고 있었고, 이것은 국제사회 혹은 항일전쟁 과정에서 중국의 호소력과 항일전쟁의 정당성, 중국인민의 항전참여 의욕을 북돋아주는 반작용을 하고 있었다. 중국학계에서는 한국독립운동이 중국의 항일전쟁에 미친 반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못한 채 ‘施惠의’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50) 胡春惠, 1976, 『韓國獨立運動在中國』(臺北: 中華民國史料研究中心), 110-114쪽.

51) 謝俊美, 2004, 앞의 글, 37쪽; 趙金勇, 2005, 앞의 글, 138쪽.

52) 張欣, 2003, 앞의 글, 78쪽.

53) 楊天石, 2000, 앞의 글, 25-26쪽.

2. 대한민국임시정부 내 政派들에 대한 통합 노력과 문제점

중국학자들은 국민정부의 원조활동 못지않게 한국독립운동세력의 분열을 방지하고 단결·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과 각종 조치들을 강조한다. 그들에 의하면, 원래 국민정부에서는 중일전쟁 발발 전까지 한국독립운동 내 각 계파 간의 모순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중일전쟁 이후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원조정책이 강화되고 한국독립운동이 국민정부의 대외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각 파벌을 단결시켜 공동으로 광복운동을 벌이도록 촉구하는 과정에서 점점 독립운동 내 계파 간의 모순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정부는 한국혁명세력의 단결과 화해가 한국독립운동에 유리하고 중국 항일전쟁에도 더욱 부합한다고 인식했다고 한다.⁵⁴⁾

또한 중국학자들은 소련이 한국독립운동에 개입하는 것을 국민정부가 우려한 점과 그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히고 있다. 당시 소련은 한국독립운동에 흥미를 느껴 비밀리에 전문가를 상해로 파견해 한국임시정부와 연계를 취하였고, 만주의 조선인 독립군에게 상당한 수량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소련은 조선 공산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지와 원조를 하고 있었고, 소련 홍군 속에 엄격한 훈련을 받은 수만 명의 조선국적 병사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정부는 한국독립운동 내의 당파분쟁이 소련으로 하여금 임시정부와는 별개의 정권수립을 지지하는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당시 미국과 영국 등은 한국독립운동세력이 당파 분쟁으로 단결·협작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여러 차례 거절해왔기 때문에, 국민정부에서는 한국독립운동세력의 분열상황이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정부의 한국독립운동 원조정책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미국·영국 등에게 구실을 주어 중국이 동맹국들로부터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얻어낼 때 우방국들의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여겼다고 한다.⁵⁵⁾ 그 결과

54) 張玉紅, 2009, 앞의 글, 75쪽.

55) 胡春惠, 1976, 앞의 책, 28쪽, 177쪽.

韓人의 통일을 촉진하고 多黨을 一黨으로 만들려는 국민정부의 의도가 더욱 강렬해졌다는 것이 중국학자들의 견해이다.

이를 위해 1938년 10월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정치부에서는 한국혁명세력이 파쟁을 중지하고 각 당파가 무조건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며⁵⁶⁾, 1939년 1월에는 장제스가 한국독립운동세력의 분열상황을 극복하고 在中 한국 각 당파의 단결을 촉진하기 위해 양대 계파의 영수인 김구와 김약산을 따로 만나 조선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쌍방이 단결해 공동으로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 물리치자고 권고하였다고 한다.⁵⁷⁾ 이러한 입장에서 국민정부에서는 임시정부가 가까운 시일에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아 군사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가 제정한 「한국문제 처리원칙」에 근거해 임시정부를 안정시킬 조치들을 취했다고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들로서 첫째는 임시정부 내의 양대 정당에게 압력을 가해 합작을 하도록 촉구해 임시정부 내에 또 다른 임시정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고, 둘째는 다양한 루트로 원조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해소하고 모든 원조는 임시정부에게만 집중되도록 했으며, 셋째는 임시정부 내 당파의 난립을 방지하고 정쟁을 중지시키기 위해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 이외의 정당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기로 했고, 넷째는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경비를 늘리고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했으며, 한국교민의 생활비를 당파 활동경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다섯째는 1945년 봄 국민정부에서 한·중 쌍방이 서명한 「準繩」을 폐기하고 「援助韓國光復軍辦法」으로 대체했으며, 중국 쪽 인원을 모두 한국광복군에서 철수시키고 한국광복군을 임시정부에 예속시켰다고 한다.⁵⁸⁾

더 나아가 중국학계에서는 임시정부 내 각 정파가 지도하던 무장부대들

56) 張欣, 2003, 앞의 글, 77-78쪽; 鄒蔚蔚, 2013, 앞의 글, 85-86쪽; 楊副軍, 1994, 「流亡重慶的韓國獨立運動各黨派之關係」, 『抗日戰爭研究』 第2期, 196쪽; 張玉紅, 2009, 앞의 글, 76쪽.

57) 張欣, 2003, 앞의 글, 77-78쪽; 鄒蔚蔚, 2013, 앞의 글, 85-86쪽; 楊副軍, 1994, 위의 글, 196쪽.

58) 楊副軍, 1994, 위의 글, 211쪽.

을 통합시켜 통제를 강화하고 임시정부 내 각 정파의 단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정부에서 다양한 노력과 압력을 가해, 1941년 5월 최대의 좌파 정당인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한국독립당과 합작하도록 유도했고, 1943년 2월에는 임시정부 옹호의사를 표명하는 동시에 임시정부가 전 민족의 독립사업을 이끄는 혁명정권기구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이끌어냈다고 본다. 또한 延安에서 金料奉이 이끈 조선독립동맹도 임시정부가 한국독립운동의 지도본부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인식한다.⁵⁹⁾

이와 아울러 중국학자는 국민정부가 한국인 무장조직들의 통합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해 이들의 분열활동을 방지하고 통제를 강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1941년 10월 장제스가 허잉친(何應欽)에게 한국 광복군과 조선의용대를 중국 군사위원회에 직속시켜 중국인 참모총장이 통일적으로 지휘·통제·운용하고 經費까지 전담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두 무장부대의 분열활동을 중국군이 통제하도록 했다는 점,⁶⁰⁾ 1942년 5월 중국 군사위원회가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에 합병시켜 ‘광복군 第1支隊’로 개편하도록 명령하고 金若山을 광복군 부총사령관직에 임명하는 동시에, 참모장 및 각 단위 책임자는 중국인이, 부책임자는 한국인이 말도록 함으로써⁶¹⁾ 한국광복군에 대한 중국군의 통제를 강화시킨 점을 거론한다. 또한 경비를 임시정부에 지급한 뒤, 임시정부가 각 당파에 분배하도록 함으로써⁶²⁾ 경비 지급 문제를 한국독립운동세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도 강조한다.

중국학계에서는 상술한 것처럼 중국 국민정부가 임시정부 내 우파 진영의 손을 들어주고 좌파 진영에게 압력을 가해 우파 진영으로 통합하도록 유

59) 石源華, 1996, 『韓國獨立運動史新論』(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쪽; 楊副軍, 1994, 앞의 글, 203-204쪽; 『新華日報』 1943년 2월 26일 第2版.

60) 範廷杰, 「韓國在華革命武力的統一」, 『傳記文學』 第29卷 第1期, 112쪽.

61) 張欣, 2003, 앞의 글, 77쪽; 楊天石, 2000, 앞의 글, 8쪽; 楊副軍, 1994, 위의 글, 204-205쪽.

62) 謝俊美, 2004, 앞의 글, 37쪽; 胡春惠, 1978, 앞의 책, 269쪽.

도하고 조선의용대를 강제로 한국광복군에 합병시킨 배경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즉 한국독립운동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던 국민당 중앙조직부장 주자화(朱家驊)의 각종 電報나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당시 국민당 지도부는 김구 일파가 이끈 한국독립당이 가장 우수하고 영향력도 가장 크고 국민당을 동정하고 있는 ‘親中派’로 간주하는 동시에, 그들의 강령도 민족주의 색채가 강해 국민당의 혁명취지와 서로 같다고 평가하면서 이 당파를 지원해야 한다고 여겼지만, 김약산 일파는 사상이 복잡하고 소련과 관련 있는 親共派로 간주하여, 그들이 공산당에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동시에 그들의 발전을 도울 필요는 없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⁶³⁾ 이처럼 김구 일파와 김약산 일파에 대한 국민당의 인식이 확연히 달라진 계기를, 1941년 초 조선민족혁명당의 무장부대인 조선의용대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북상해서 화북의 일본군 점령지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팔로군 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한 데서 찾고 있다.⁶⁴⁾ 중국학자들에 의하면, 그 행위가 조선의용대를 줄곧 지원했던 국민당국의 분노를 야기했고 국민당에 대한 배신행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약산은 중국 국민당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본다. 그 때문에 중국 국민당은 김약산에게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한국광복군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중국학계의 견해이다.⁶⁵⁾ 이것은 국민당의 이념적 편향성을 의식한 대륙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중국학자들은, 김구가 이끈 임시정부와 김약산이 이끈 조선민족혁명당 사이에 충돌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국민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지지하고 조선의용대에게 통제와 압력을 가하고 양보를 촉구해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에게 통합시켰다고 인식한다. 더욱이 김약산이 이끈 조선의용대원 다수가 공산당의 항일근거지로 이동함으로써 국민당 내의 우파들을 자극하였기

63)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88, 앞의 사료집, 107-120쪽, 572-573쪽, 408-409쪽.

64) 石源華, 1997, 『金若山將軍』(서울: 韓國高句麗圖書), 77쪽.

65) 趙金勇, 2005, 앞의 글, 139쪽.

때문에, 원조정책을 추진한 주자화 등은 김구 및 그가 이끄는 한국독립당을 더욱 지지했다고 파악한다.⁶⁶⁾ 또한 국민당 중앙이 김구가 이끈 한국독립당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준 것은, 한국독립당으로 하여금 조선의용대 및 조선 민족혁명당을 지지하는 민족주의 좌익세력과 대항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공산당의 음모에 저항하고 조선 민족주의 세력이 공산당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⁶⁷⁾ 하여튼 국민당의 지지 속에 통합의 주체가 된 한국광복군의 세력과 영향력은 커진 반면에, 조선민족혁명당은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통제를 받게 되었고 자신들이 이끌던 조선의용대마저 한국광복군에 합병되면서, 그 세력이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당과 경쟁에서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고 인식한다.

양푸권(楊副軍)은 그러한 국민당의 통합조치에 대한 조선의용대원 다수의 불만도 소개하고 있다. 즉 당시 조선의용대원 다수는 조선의용대가 국민당의 강제명령으로 한국광복군에 합병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었으며, “보수적이고 완고한 한국독립당과 그들에 의해 지도되는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고 자신의 발전을 매장시키는 것”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따라서 많은 조선민족혁명당원들은 화북의 일본군 점령지에서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항일세력이 신속하게 커지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자신들이 중국 공산당의 지지를 획득하고 공산당식의 길로 나가야만 철저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으며, 민주·자유·평등의 새로운 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일부 조선민족혁명당원들은 형식적으로 重慶의 조선민족혁명당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을 띤 사람들은 조선민족혁명당원 가운데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조선민족혁명당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견들이었다고 한다. 결국 이들의 심리적인 이탈은 조선민족혁명당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1942년

66) 趙金勇, 2005, 앞의 글, 140쪽.

67)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88, 앞의 사료집, 716-718쪽.

7월 중순 山西省 동남부에서 활동하던 조선민족혁명당원들은 延安 등지에서 온 한국인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華北朝鮮獨立同盟’을 조직했고, 조선의용대를 ‘朝鮮義勇軍’으로 개명하게 되었으며, 화북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은 팔로군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화북 거주 20만 조선 교민의 혁명 중견세력이 되었다고 인식한다.⁶⁸⁾ 결국 중국학자들은 한국독립운동세력에 대한 중국 국민정부의 통합조치가 한국독립운동세력의 새로운 분열을 야기했다고 여긴다. 이것은 국민당의 이념적 편향성과 그에 따른 폐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륙학자들의 시각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륙학자들의 한국독립운동 인식과 평가는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국민정부(국민당)의 지원활동과 관련해 중국학자들이 제기한 몇 가지 문제의식은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들의 인식을 소개하면,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일 양국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국민정부의 지지는 對日 관계상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일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중·한 양국 인민의 반일운동은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정부에서는 전방위적이고 공개적으로 임시정부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외국 망명정부로 대우했으며, 중국 거주 한국교민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항전에 참여하도록 유도·격려하는 데 원조의 중점을 두었다.⁶⁹⁾ 심지어 국민당은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협조를 국민정부 정책의 공식적인 일부분으로 삼았으며, 특히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상당히 진지하게 한국독립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원조를 對日전쟁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선포하기조차 했다.⁷⁰⁾ 그 결과 임시정부는 중국의 공개적인

68) 楊副軍, 1994, 앞의 글, 206쪽.

69) 張欣, 2003, 앞의 글, 76쪽; 趙金勇, 2005, 앞의 글, 138쪽.

70) 林能士, 1998, 「國民黨派系政治與韓國獨立運動」, 『韓國研究論叢』 第4輯, 109쪽.

지원 속에서 지하활동의 역사를 끝내고 중국인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식민주의·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다.⁷¹⁾ 당시 중일전쟁은 중국에게는 민족의 존망과 직결된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한국독립운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어 희망을 가져다주었고 武裝光復運動을 활성화시켰으며, 한국항일지사들로 하여금 “중국의 항전=한국의 독립”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⁷²⁾

중국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또 다른 것은, 국민정부의 원조활동이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었고 정책결정 시스템도 완전하지 못해 한국독립운동의 원조공작에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주자화가 송쓰원(宋子文)에게 보낸 전보에서 “제가 수년 동안 한국독립운동 당파의 단결을 힘써 권유했지만, 우리 쪽의 일부가 진상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大局을 헤아리지 못해 은연중에 통일노력을 방해해 끝내 그 결실을 맺지 못했다.”⁷³⁾고 밝힌 점에서도 입증된다.

중국학자들은 당시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국민정부의 원조성고가 그리 크지 않았던 원인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국민정부의 한국독립운동 원조기구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난립했다. 즉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37년 중일전쟁 전까지 국민당 최고층에서는 CC계통(領袖 陳果夫)이 장악한 국민당 중앙조직부가 김구 일파를, 復興社(力行社) 계통이 장악한 군사위원회 정치부가 김약산 일파를 각각 연계·지원하도록 지정했고 서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다.⁷⁴⁾ 또한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서는 김약산이 이끄는 ‘조선의용대’를, 국민당 중앙조직부에서는 김구가 이끄는 ‘한국광복군’

71) 李昊, 2004, 앞의 글, 33쪽.

72) 임시정부 및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국민당의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사례에 대해서는 林能士, 1998, 앞의 글, 116쪽을 참조 바람.

73)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88, 앞의 책, 571쪽.

74)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88, 앞의 책, 71쪽; 張玉紅, 2009, 앞의 글, 76쪽; 胡春惠, 1976, 앞의 책, 47-54쪽.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국민당 두 계통(CC계통, 復興社=力行社 계통)의 지원실태에 대해서는 林能士, 1998, 『國民黨派系政治與韓國獨立運動』 『韓國研究論叢』 第4輯, 113-115쪽을 참조 바람.

을 각각 지원했는데, 이것은 한국항일무장세력의 분산을 가져왔고 양대 한국무장조직의 통합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비록 국민정부가 한국독립운동세력의 분열상황이 심각함을 깨닫고 1942년 5월 원조정책을 조정해 조선의 용대를 반강제로 한국광복군에 병합시켰지만, 해마다 이들 사이의 모순과 분쟁이 생겨났다.⁷⁵⁾ 이처럼 국민당의 한국독립운동 지원이 두 계통으로 추진되면서 1930년대 이후 중국에서의 한국독립운동은 사실상 국민당의 계파정치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김구와 김약산 양파의 배후에는 각각 별개의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독립운동 각 당파를 단결시키려는 국민당의 노력은 결실을 얻지 못했다. 더욱이 중일전쟁 기간에는 국민당 내 계파 경쟁이 점점 격화되면서 한국독립운동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⁷⁶⁾ 둘째 한국의 일부 독립지사들은 국민정부의 이원적인 지원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심지어 국민정부가 이중적인 수법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까지 할 정도로 국민정부의 지원정책은 불신을 자아내고 있었다. 셋째 한국독립운동세력에 대한 국민정부의 경비 분배방식 역시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의 분규를 유발했다.⁷⁷⁾ 이것은 우티에청(吳鐵城)이 주자화에게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은 경비문제로 다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두 조직의 통일을 완성하는 데 방해를 초래하고 있다.”⁷⁸⁾는 보고내용이 입증해주고 있다.

국민정부의 원조활동과 관련지어 볼 때, 중국 關內에서의 한국독립운동이 지난 전반적인 문제점들은 1942년 9월 주자화가 장제스에게 올린 다음의 보고서에서 잘 집약되어 있다. “한국광복군의 總司令과 副總司令이 인원

75) 張玉紅, 2009, 앞의 글, 77쪽; 楊天石, 2000, 앞의 글, 14쪽.

76) 林能士, 1998, 앞의 글, 115쪽; 張玉紅, 2009, 앞의 글, 77쪽.

77) 張玉紅, 2009, 앞의 글, 77쪽; 楊天石, 2000, 앞의 글, 14쪽. 대표적인 분규사례에 대해서는 楊副軍, 1994, 앞의 글, 209쪽; 張玉紅, 2009, 앞의 글, 77쪽; 楊天石, 2000, 앞의 글, 14쪽; 外交部情報司情報, 「韓國臨時政府國務會議爭辯之內容」(韓國臨時政府情報卷)『中韓關係專檔』九; 朝鮮民族革命黨中央委員會, 「朴精一, 趙琯九等反統一派侵吞公款捏造金九等暗殺事件真相」(韓國雜卷), 『中韓關係專檔』四(臺北:中國國民黨史會 所藏)을 참조 바람.

78) 胡春惠, 1988, 앞의 사료집, 499쪽.

을 통솔하는데 이들은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사상을 대표하고 있어서 의지를 집중시키거나 軍수를 통일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게다가 국민정부 쪽 관련 기관의 견해 역시 일치하지 않아서 그것을 운용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감정에 의존하고 있고 국책들을 조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부지불식간에 독립군 당파들의 분규를 조장해 독립군의 운영·지도에 방해를 초래하고 있다.”⁷⁹⁾ 이와 같은 국민정부의 원조활동이 초래한 부작용과 한계에 대한 지적은, 국민당과 무관한 위치에 있는 대륙학자들의 현재적 입장에서 비롯된 객관적인 인식의 도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중국 關內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이끌던 독립운동에 대해 중국인들은, 임시정부는 외교 선전, 테러·암살, 무장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중국 항일전쟁의 중요한 국제적 縱隊가 되어 중국의 항일전쟁과 한국의 反日獨立運動을 지원하는 二重의 사명을 짊어지고 中·朝 인민이 공동으로 일본과 투쟁하는 혁명전쟁에 참여하도록 호소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학계에서 한국독립운동을 높이 평가한 사례는 임시정부가 주도한 암살활동이다. 가령 윤봉길의 義擧는 한국독립운동에 轉機를 마련해주어 임시정부 및 김구의 위상을 높여주었고 중국 및 조선에서의 독립운동 지지를 이끌어 내었으며 한국독립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고 인식한다. 그러면서도 중국학계에서는 윤봉길의 의거가 한국의 단독 거사라기보다는 중국 官方人士가 임시정부와 공동으로 계획한 결과로 인식한다. 한국인 무장부대인 朝鮮義勇隊와 韓國光復軍의 항일투쟁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이 중국인민의 항전사업을 위해 중국 땅에

79) 胡春惠, 1988, 앞의 사료집, 407쪽.

서 많은 희생과 공헌을 했으며, 비록 규모가 작았지만 일본군에 대한 선전, 국제적 선전활동, 일본군 포로 교육, 일본문건 번역, 일본군 소속 한국국적 사병의 쟁취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중국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의용대에 대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역할을 비롯해서 한국인 무장부대에 대한 중국정부나 공산당의 지도 및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민정부가 한국광복군의 지휘·통제·운용 권한을 장악한 것에 대한 한국독립운동가들의 반발과 불만 표출, 그에 따른 양자 간의 葛藤에 대해서도 밝혀내고 있다. 게다가 임시정부를 형성하고 있던 각 정파들의 이합집산이나 분열상황, 그러한 배경과 원인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한계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 혹은 무장부대 내의 당파나 갈등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국민당(국민정부)이 취한 다양한 노력과 역할 등을 무척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대륙학자들의 인식에서는, 대만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정부(공산당을 포함해서)의 일방적인 원조와 지도·통제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宗主國 의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학계에서는 중국정부가 지닌 이념성과 당파성으로 인해 지원활동이 우파 계통의 조직과 무장부대에 편향적으로 집중되었고 무장부대의 통합과정에서도 강제성을 띠었던 점, 그로 인해 조선의용대원 상당수의 반발과 이탈을 초래해 무장부대의 분열을 초래한 점, 한국독립운동을 지도·원조하는 과정이 체계적이고 일원적이지 못해 오히려 독립운동세력 간의 분열상과 한계를 노출시킨 점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잘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독립운동 각 당파의 통합이 실패하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중국학계에서는 이념상의 차이가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우파인 光復陣線과 좌파인 民族戰線聯盟 양대 진영의 배후에 각각 중국의 후원자가 있어서 이들이 서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한 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CC계는 김구 일파와의 관계를, 부흥사는 김약산 일파와의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 결과 국민당 내 계파간의 경쟁 속에서 한

국독립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했고 한국독립운동의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⁸⁰⁾

국민정부의 한국독립운동 원조공작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는, 중일전쟁 시기 국민정부 최고당국에서 한국독립지사들과 교류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하여 과단성 있게 원조의 중점대상을 확정하지 못한 점, 한국독립운동 원조공작에 대한 국민정부 내의 권한이 나뉘어져 원조를 둘러싸고 국민당과 군대 사이에 異見·모순·불신이 야기되었고, 이것은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국민정부의 원조공작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독립운동 양대 파벌의 분쟁을 조장하는 등, 국민당 내부의 宗派 모순이 한국독립운동 원조과정에도 투영되고 있었던 점⁸¹⁾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국독립운동 세력의 단결과 통일을 실현하려는 국민정부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다.⁸²⁾

결국 중국학자들은 중국의 원조·지도 활동만을 강조함으로써 한국독립운동이나 무장투쟁을 ‘施惠의’인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나 평가는, 한국독립운동이 중국의 원조와 지도에 의해서만 지속해나갈 수 있었다고 파악할 뿐, 국민정부(혹은 중국 공산당)가 한국독립운동세력을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고 ‘통제 대상’ 내지 ‘下位的 존재’로 대우한 점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중국 일변도의 ‘주관적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시혜적 인식에는 사회적 행위가 작용과 반작용의 유기적인 交互작용의 결과물이라는 객관적인 행위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중국학자들은 한국독립운동이 중국의 항일전쟁에서 차지한 위상과 역할, 중국정부(중국 공산당 포함)가 임시정부 및 한국독립운동세력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 한국독립운동세력이 중국의 反帝 反파시스트 저

80) 林能士, 1998, 앞의 글, 117쪽.

81)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88, 『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71쪽; 張玉紅, 2009, 앞의 글, 76쪽.

82) 張玉紅, 2009, 앞의 글, 76-77쪽.

항운동 및 사회주의 혁명운동 그리고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주었는지 등, 중국과 한국독립운동세력 사이의 ‘雙方向的인’ 상호작용과 역할, 의미 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中韓關係專檔』一~二十一, 臺北: 中國國民黨史會 所藏
- 『(1992) 國民政府軍事委員會訓令』, 『尹呈輔先生訪問記錄』, 臺北: 近代中國出版社
- 『蔣介石致吳鐵城函』(軍事委員會快郵代電 第12349號)(韓國光復軍卷) 『中韓關係專檔』三, 臺北: 中國國民黨史會 所藏
- 『張壽賢致吳鐵城呈』(韓國光復軍卷) 『中韓關係專檔』三, 臺北: 中國國民黨史會 所藏
- 『照抄陷川侍六代電』(韓國光復軍卷) 『中韓關係專檔』三, 臺北: 中國國民黨史會 所藏
- 『韓國臨時政府外務部長趙素昂照會』(韓國臨時政府情報卷) 『中韓關係專檔』二十一, 臺北: 中國國民黨史會 所藏
- 『韓國臨時政府擬遷往美國』(委員長侍從室致吳鐵城函附件)(韓國臨時政府情報卷) 『中韓關係專檔』九, 臺北: 中國國民黨史會 所藏
- 金九, 1970, 『白凡逸志』, 臺北: 幼獅書店
- 閔石麟, 『韓國各黨派述略』(韓國各黨派情報卷) 『中央關係專檔』十, 臺北: 中國國民黨史會 所藏
- 外交部情報司情報, 『韓國臨時政府國務會議爭辯之內容』(韓國臨時政府情報卷) 『中韓關係專檔』九, 臺北: 中國國民黨史會 所藏
- 朝鮮民族革命黨中央委員會, 『朴精一, 趙琯九等反統一派侵吞公款捏造金九等暗殺事件真相』(韓國雜卷) 『中韓關係專檔』四, 臺北: 中國國民黨史會 所藏
-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88, 『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臺灣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史料總刊 7,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蕭錚, 1953, 『韓國光復運動之鱗爪』 『中央日報』(臺北) 8月 25日
- 『解放日報』 1941年 10月 7日

2. 한국어 문헌

- 김승일, 2010, 「3·1운동 전후 쑨원(孫文)의 한국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7집
- 金熙泰, 1991, 「武裝 抗日獨立運動에 대한 延邊史學界의 視角」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집
- 배경한, 1999, 「손문(孫文)의 중화의식과 한국 독립운동」 『역사비평』 제46집
- 孫科志, 2010,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중국 매체의 보도와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5집
- 윤경로, 2010,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2000년대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2집

- 尹善子, 2006, 「광복 60주년과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역사학보』 제191집
- 이재령, 2007, 「항전시기(抗戰時期)(1937~1945) 국공양당(國共兩黨)의 한국관(韓國觀) : 『중앙일보(中央日報)』, 『신화일보(新華日報)』를 중심으로」 『中國學報』 제56집
- 李炫熙, 1997, 「1930년대 中國地域 韓人獨立運動의 研究成果와 課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6집
- 장세운, 1995, 「抗日戰爭期 중국공산당의 한국 독립문제 인식과 대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
- _____, 2013, 「20세기 초반 주요 중국 언론의 한국독립운동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75집
- 한시준, 2009, 「尹奉吉의사의 홍구공원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2집

3. 외국어 문헌

- 康澤, 1993, 「培養特別隊的皇子特別訓練班始末」 潘家劍 編, 『蔣介石特工密檔及其他』, 北京: 群眾出版社
- 顧祝同, 1983, 「朝鮮義勇隊的第三戰區工作」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韓國獨立運動史料集』, 서울: 博英社
- 林能士, 1998, 「國民黨派系政治與韓國獨立運動」 『韓國研究論叢』 第4輯
- 茂清, 2002, 「大韓民國臨時政府在上海」 『文史精華』 第2期(總141期)
- 文正一·池寬容, 1995, 「抗日戰爭中的朝鮮義勇隊」 『民族團結』 第7期
- 潘公昭, 1947, 『今日的韓國』, 上海: 中國科學圖書儀器公司
- 範廷杰, 「韓國在華革命武力的統一」 『傳記文學』 第29卷 第1期
- 謝俊美, 2004, 「抗戰時期中國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6卷 第1期
- 石源華, 1995, 『韓國獨立運動與中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_____, 1996, 『韓國獨立運動史新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_____, 1997, 『金若山將軍』, 서울: 韓國高句麗圖書
- _____, 1997, 『中國共產黨與韓國獨立運動關係記事』, 서울: 高句麗
- _____, 1998, 「韓國臨時政府述論」 『韓國反日獨立運動史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_____, 2006, 「紀念韓國獨立光復60周年感言: 論韓國獨立運動在世界現代史上的地位與作用」 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 編, 『韓國研究論叢』 第13輯
- 蘇智良·高興華, 2007, 「金九在上海」 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 編, 『韓國研究論叢』 第17輯
- 孫科志, 2007, 「近代中國人對三一運動的現況」 『동북아 문화연구』 第13집
- 孫玉梅·宋健·金成蘭·馬彥合 著, 1997, 『韓國著名獨立運動家傳』, 長春: 吉林省社會

科學院

- 楊副軍, 1994, 「流亡重慶的韓國獨立運動各黨派之關係」, 『抗日戰爭研究』 第2期
- 楊昭全·韓忠富, 1996, 『大韓民國臨時政府史料匯編』, 長春: 吉林省社會科學院出版社
- 楊天石, 2000, 「蔣介石與韓國獨立運動」, 『抗日戰爭研究』 第4期
- 余建華, 1994, 「大韓民國臨時政府諸問題探略」, 『史林』 第4期
- 王梅·李波龍, 2015, 「本土新聞媒體視域下的韓國獨立運動」, 『當代韓國』 第1期
- 王子毅, 1945, 『韓國』, 常務印書館
- 李昊, 2004, 「韓國獨立運動與鎮江」, 『江蘇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卷 第4期
- 張玉紅, 2009, 「抗戰時期國民政府對韓國獨立運動派系矛盾的調處及其影響」, 『東疆學刊』 第26卷 第4期
- 張欣, 2003, 「虹口公園爆炸案對大韓民國臨時政府的影響」, 『石油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9卷 第2期
- 鄭成宏, 2005, 「中韓友誼之樹長青--中國共產黨支持韓國獨立運動的歷史見證」, 『當代韓國』 春季號
- 趙金勇, 2005, 「論韓國臨時政府的武裝復國運動」, 『軍事歷史研究』 第2期
- 鄒蔚蔚, 2013, 「在中國奮鬥二十六年的“韓國國父”金九」, 『文史天地』 第8期
- 何立波, 2007, 「“韓國國父”金九餘中國的不解情緣」, 『史潮汐』 第5期
- 胡春惠, 1976, 『韓國獨立運動在中國』, 臺北: 中華民國史料研究中心

투고일: 2015년 11월 17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20일

■ 中文摘要 ■

中国学界对关内韩国独立运动的认识和评价

尹輝鐸

中国学界认为大韩民国临时政府独立活动不仅鼓舞了朝鲜人民的反帝勇气和信念,而且号召中国国内的朝鲜侨民积极参加中朝人民共同抗击日本的革命战争,同时组织了各种武装组织直接投入到抗日战争之中.但是,中国学界认为因为国民党内的派系之争,没能解决韩国独立运动的实质性问题,给韩国独立运动的发展带来了不利的影响.然而,中国学界对韩国独立运动的认识和评价集中反映大韩民国临时政府领导的韩国独立运动的历史意义,中国对韩国独立运动的援助以及为防止韩国独立运动势力的分裂中国政府做出的努力等方面.但是对于韩国独立运动在中国抗日战争中的地位和作用,中国政府(包括中国共产党)是打算如何利用大韩民国临时政府及韩国独立运动势力,韩国独立运动势力在中国的反帝反法西斯战争和社会主义革命运动以及中国的国际地位和利用带来的效果缺乏关注.

关键词: 韩国独立运动, 韩国光复军, 朝鲜义勇队, 中国国民政府, 中国国民党, 中国共产党